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5면)

위정희 송파구의원

가락본동 비석거리공원정비·오금역일대 보행로 추진

송파구의원 위정희 의원(재정 복지위원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의화주만 행정'이 함께하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이끌어냈다.

위정희 의원은 최근 가락본동의 역사적 명소인 '비석거리공원'과 유동 인구가 많은 '오금역 6번 출구' 일대를 찾아 가락본동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가락본동장, 송파구청 공원녹지과장 등 관계자들과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선시대 송덕비 11기가 보존되어 있어 고유한 역사적 특색

을 지닌 가락본동 비석거리공원은 주민들의 쉼터로 애용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지형적 문제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과 부서 간 조율을 거쳐 ▲노후 계단 손잡이 교체 ▲보행자 낙상 방지를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 ▲안전 펜스(안전대) 정비 ▲시아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수풀 제거 등을 즉각 추진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이와 함께 오금역 6번 출구 일대의 숙원 과제였던 보행로 단절 문제도 명쾌한 해법을 찾았다. 해당 구간은 과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서 정작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해야 했던 곳이다. 위 의원은 공원녹지과와의 현장 대화를 통해 기존 녹지대 약 20m 구간을 전격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전용 인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역사문화 쉼터의 안전성 강화는 물론, 지하철역을 오가는 다수 주민의 일상 보행권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위정희 의원은 "문제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의회와 주민,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행정 절차의 벽을 넘어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현장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소통 행정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